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함을 알려주세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의 출판사는 어디인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강원지부	작은도서관caru	이선미	나의 비거니즘 만화	푸른숲	보선	패스트푸드 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채식을 생각해봐요
강원지부	뒤뚜르도서관	이순애	14세와 타우타우씨	아름드리미디어	우메다 순사쿠/우메다 요시코	"내가 나인게 까닭없이 좋다"
강원지부	스무숲도서관	홍선희	담장을 넘은 소녀	다른	김미승	p107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투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그 쓰임이 있다는데,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없을까? 나는 진짜 나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다. 질문은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만큼이나 많은데 돌아오는 답은 한 가지였다. "불공평해."
경기북부지부	와이시티작은도서관	김경진	지금은 지구를 구할 시간	씨드북	오승현	어느 날, 숲에 큰불이 났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동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산불을 지켜만 봤죠.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작은 벌새 한 마리가 입에 물을 머금고 와서 불을 끄려고 애썼어요. 바삐 오가는 벌새를 본 아르마딜로가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죠. "벌새야 너 미쳤어? 그 적은 물로 어떻게 불을 끄겠다는 거야?" 그러자 벌새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그저 내 몫을 다 할 뿐이야."
경기북부지부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김연희	지구를 살리는 옷장	창비	박진영 신하나	157쪽 .실천은 본래 추구이고, 도달이 아닌 추구로만 가능하다
경기북부지부	마상공원작은도서관	김은미	어쨌거나 스무 살은 되고 싶지 않아	비룡소	조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억할 거야. 가장 좋았던 그때를. 가장 좋은 지금을.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정희	돼지들	천개의바람	클레망틴 보배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괜찮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반대로 못생긴 사람들은 늘 괜찮지 않고,그래서 못생겼다.
경기북부지부	모당공원작은도서관	김희정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사계절	최나미	백지에 가까운 기억도 진실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하고 있잖아
경기북부지부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희	오, 사랑	사계절	조우리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경기북부지부	고양 작은도서관	심은경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문학동네	이꽃님	아빠랑 나랑 같은 일직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달리기를 멈춰 버린 거야, 그리곤 투덜거리는 거지. 아빠는 왜 더 빨리 달려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나는 투덜대기만 하고 달리기를 멈춰 버렸어. 아빠는 내가 달리지 않는 만큼 더 많이 달려와야 했어. 길이 그렇게 멀어졌는데 한 번도 투덜대지 않고 나만 보면서 묵묵히.... 요즘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다ㅜㅜ
경기북부지부	햇빛21작은도서관	윤영연	다이브	창비	단요	그건 아마도 마음의 힘일것이다. 고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저 마주보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것.
경기북부지부	하늘벗작은도서관	장희경	소리를 삼킨 소년	자음과모음	부연정	침묵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을 뿐이다
경기북부지부	와이시티작은도서관	전선미	시간을 건너는 집	특별한서재	김하연	청소년들도 어른들만큼이나 인생이 힘것 같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쓴소리는 잠시 접어두고 공감할 만한 책 한권을 건내주는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경기북부지부	동양아파트작은도서관	최정화	한 명	현대문학	김 숨	신에게 소원을 빈다면 그녀는 하나만 빌 것이다. 고향마을 강가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열세살 그대로.
경기북부지부	화전작은도서관	황보미	하얼빈	문학동네	김훈	"포수, 무직, 담배팔이, 이 세단어의 순수성이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등대처럼 나를 인도해주었다. 이 세 단어는 생명의 육질로 살아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위력에도 기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청춘의 언어였다."
경상지부	마하어린이도서관	김나연	긴긴밤	문학동네	루리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 보게 되고, 네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네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불은한 알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였다. 아이와 함께 같던 서점에서 우연히 읽게 되어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고 먹먹해져서 혼났던 책이었어요. 아동도서로 추천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읽어도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할 거리가 충분할 거 같아서 추천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우화라 더욱 아름다웠던 책이라 추천해봅니다~
경상지부	마하어린이도서관	이주연	요나단의 목소리	놀	정해나	"그애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나는 평생 그 마음을 그리워한다." 신이 가장 원망스러운 시절에 선물하는, 신을 사랑하거나 미워한 아이들의 이야기 전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이 책 읽고 엄청 눈물 흘렸네요. 만화책인데요, 어찌 보면 단순한 그림체지만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종교는 그걸 믿는 사람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만..여하간 청소년에게 추천하고파요.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신화숙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이야기꽃	김영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제주에는 100 여개의 '잃어버린 마을'이 있답니다 제주4.3때 불타버리고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은채 버려진 마을입니다. 이유도 잘못도 없이 사라진 마을이지만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지부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박성원	문 밖에 사자가 있다	뜨인돌어린이	윤아해 글 조원희 그림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내어 한걸음 내딛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대구지부	해봄작은도서관	이수미	별난 사회 선생님의 역사가 지리네요	우리학교	권재원	역사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혹은 역사적 사실 로만 알고 넘어가는 대신 지형 기후 주변 나라와의 관계 등 지리 현상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방식은 청소년에게 큰 도움을 주고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복잡하기로 유명한 남해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류가 엄청나게 빠른 곳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곳도 있고 소용돌이치는 곳도 있다. 방향도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남해안 해역의 섬 ,곶, 만의 위치 특징, 그리고 각 해역의 풍향과 조류변화를 손바닥처럼 이는이에게는 승리를보장할수밖에 없다
대구지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이옥희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음과모음	김혜정	조금씩 단단해지는 너를 응원할게. 네가 누구보다 자신을 많이 좋아하길. 스스로를 많이 아껴 주길. 니도 그럴게.
사무국	협회, 개인회원	김진희	달에서 아침을	위즈덤하우스	이수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비둘기도, 나도, 다른 아이들도 우리는 모두 '공범자"라는 것을 (103쪽)
사무국	협회, 개인회원	김현실	꿈꿀 권리	알마	박영숙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과 자료는 경쟁에서 이기고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였다. 종종 삶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별이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처럼 길을 찾아갈 실마리였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충분히 도움닫기를 하는데 필요한 구름판 같은 것이었다.
사무국	사무국	양지선	미니어처하우스	은행나무	김아정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배우는데, 과연 타인이 타인을 이해하는 게 가능한 것일까? 이해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 아닌가?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걸까?
사무국	협회, 인천지부	이은주	존엄을 외쳐요	사계절	김은하	존엄은 너와 내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고 감히 누구와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마음이에요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강연화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 141 지금 최 앞에 있는 사람은 센터장도, 가디도 아니었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무서워 벽장속에 숨은 작은 아이였다. " 선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이제 누구도 선배에게 함부로 대할수 없어" " 도망가지 않아.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여주고 싶어.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박성은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 167 나는 테이블에 놓인 그림을 물끄러미 보았다. 이걸 그리기 위해해오름은 꽤 시간을 들였겠지. 재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있는게 아닌 것 같았다,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재능 같았다. 싸우고 다투고 매일같이 싱처를 입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지 않는 가족처럼 말이다. 아니, 그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무엇 아닐까.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백현진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200 부모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와 함께 놀고 즐기면 된다.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신나미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 160 자신이 바라는 아이로 만들려는 욕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는 마음이 먼저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가는 것이다. pg. 200 어쩌면 부모 역시 자녀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는건지도 몰랐다. 자녀가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녀로부터의 진정한 부모 독립 말이다.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함을 알려주세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의 출판사는 어디인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책 속의 한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양정아	맹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창비	임지윤	주인공 마니와 마니 엄마에게 큰 영향을 끼친 명언 "남이 깨주면 달걀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된다." <J.하슬러의 명언 > 나도 스스로 깨는 병아리가 되어 엄마닭으로 크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위안 삼으며 힘내어 살아 가고 있는 중이다.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이영옥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 112 우리가 원하는 진짜 어른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이곳의 센터장인 박 같은 사람.
서울지부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장선덕	페인트	창비	이희영	pg. 92 그 관계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다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정선화	별맛일기	보리	심흥아	요리를 소재로 한 가족과 사람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읽고 나면 요리가 해보고 싶어집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도 잘 읽습니다.
서울지부	작은도서관 웃는책	조영아	리버보이	다산북스	팀 보울러	"강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리만큼 흘러가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구불구불 돌아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바다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난 이 모든 것에서 안식을 찾아."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것을 만나든 간에 결국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을. 알고 있니? 결말은 늘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인천지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유영란	호수의 일	창비	이현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 나는 몹시 안전했다 '로 시작되는 첫 문장이 인상적이고 믿고 보는 이현 작가의 소설이다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강영미	모모를 찾습니다	답게	김미희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할수 있을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고 모모도 살아내는 중일 것이다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섬,1948	천개의바람	심진규	4.3사건의 피해자들은 제주 도민만은 아니었다. 국방경비대뿐만 아니라 인민 유격대..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였다. 4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섬, 1948을 읽었고, 청소년들과 읽을 예정인 책이다.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안수일	알뢰하, 나의엄마들	창비	이금이	일제시대를 살아간 어머니들의 삶과 고뇌
충청지부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우리의 정원	사계절	김지현	"어른이 된 내게 누군가 학생 때 읽은 책을 물어본다면 무엇을 고를까? 나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남는 책이 생길까?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에게만 방을 하나씩 내주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빚어지면서 한 사람의 내면이 완성되는 건지도 모른다. 난 스무살, 서른살이 되면 무엇을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 있을까? 그 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남들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충청지부	내보물1호도서관	백영숙	훌훌	문학동네	문경민	힘든 삶이지만 잘 견디는 주인공을 응원해요.
충청지부	산책도서관	이지은	긴긴밤	문학동네	루리	읽는 나이대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감정을 함께 읽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충청지부	한울작은도서관	최수현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정용준	"필요할때마다 더듬지 않은 말을 따뜻한 말에 녹여 사람들에게 들려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열네살의 말을 더듬는 학생이 겪는 에피소드를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내면의 언어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호남지부	하늘을나는도서관	노소희	구덩이	창비	루이스 새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텅 빈 호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